

# 시사원정대 NIE 2023-4월호



##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주 수업 계획표

1주 수업 내용

2주 수업 계획표

2주 수업 내용

3주 수업 계획표

3주 수업 내용

4주 수업 계획표

4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 교재 들여다보기

###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 2) 시사네컷

전 세계에서 주목받은 최신 이슈의 내용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알아봅니다.

주요 장면과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례를 현실감 있게 이해해 봅니다.

### 3)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4)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친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 5)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4월호 3주 (90분)		
학습 목표	짧은 동영상과 과도하게 시청하는 것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 서울식물원 박혜민 조경사의 인터뷰를 읽고 조경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이해한다. 덜 녹게 만들거나 대체유를 사용하는 등 환경을 보호하는 아이스크림을 알아본다.		
활동 초점	- 짧은 동영상만 보는 습관을 줄이고 건강한 미디어 기기 사용 법을 알아본다. - 조경사로서 갖춰야 할 태도와 식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환경을 보호하는 아이스크림을 알아보고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느낀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b>47~49 맞춤칼럼</b> - 섯폼에 따르는 대가	- 디지털 기기 이용 중독의 원인 - 짧은 영상 시청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	25
	- <b>34~37 이달의 인물</b> - 박혜민 서울식물원 조경사	- 조경사가 하는 일과 식물이 어우러진 삶의 가치 - 다양한 진로 탐색	25
	- <b>92~95 과학지식배틀</b> - 환경을 보호하는 신개념 아이스크림	- 덜 녹는 아이스크림, 대체유 아이스크림 - 환경보호 방법 탐색	30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 자신이 조경사가 된다면 기르고 싶은 식물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식물의 특성을 일지로 정리해본다.	5

[3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4월호 3주		
학습 목표	짧은 동영상을 과도하게 시청하는 것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 서울식물원 박혜민 조경사의 인터뷰를 읽고 조경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이해한다.		
활동 초점	- 짧은 동영상만 보는 습관을 줄이고 건강한 미디어 기기 이용 방법을 알아본다. - 조경사로서 갖춰야 할 태도와 식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b>47~49 맞춤칼럼</b> - 섯폼에 따르는 대가	- 디지털 기기 중독의 원인 - 짧은 영상 시청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	20
	- <b>34~37 이달의 인물</b> - 박혜민 서울식물원 조경사	- 조경사가 하는 일과 식물이 어우러진 삶의 가치 - 다양한 진로 탐색	10
마무리	- 다음 주 수업 예고 -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활동 안내	- 자신이 조경사가 된다면 기르고 싶은 식물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식물의 특성을 일지로 정리해본다.	5

## 숏폼에 따르는 대가

### <어휘 UP>

콘텐츠: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내용물.

자투리 시간: 일과 사이에 잠깐씩 남는 시간.

위기의식: 질서를 잃는 데서 느끼는 불안과 절망 의식.

서슴지 않다: 머뭇거리거나 망설임이 없이 말이나 행동을 하다.

회백질: 뇌에서 신경 세포체가 밀집돼 있어 짙게 보이는 부분.

### <발문>

1. 우리가 짧은 동영상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을 정리해본다.
2.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고 유익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표한다.

### <교사 참고자료>

#### 영상 짧아질수록 시청시간 ↑...숏폼 콘텐츠의 역할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서 숏폼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영상 1개를 시청하는 시간이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 채널의 전체적인 시청 시간은 오히려 늘었다. 짧은 영상을 여러차례 보는 시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글로벌 크리에이터 전문기업 콜랩아시아는 유튜브 쇼츠 수익화가 시작된 1일 1500여 개 보유 채널을 대상으로 한 시청자 데이터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시청의 84%가 모바일에서 발생했다. 쇼츠와 같은 모바일에 적합한 세로형 콘텐츠의 시청도 활발해졌다. 유튜브 채널 유입자 10명 중 7명은 쇼츠로 처음 채널에 접근했다. 또 시청자 뷰의 88.2%가 쇼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흥미로운 점은 채널별 영상 소비 시간이다. 이전에는 영상 1편을 시청하는 시간이 2분이었지만 쇼츠 활성화 이후에는 1분으로 짧아졌다. 그런데 전체 채널별 시청시간은 약 2.3배로 증가했다. 한 시청자가 약 10분 길이의 유튜브 영상 1편을 보는 것보다 60초 분량의 쇼츠를 10번 이상 보는 빈도가 늘어났다는 해석이다.

유튜브는 이날부터 쇼츠 수익을 크리에이터들에게 분배한다. 이전까지는 신규 구독자 1000명을 보유하고 시청시간이 4만 시간을 넘는 크리에이터만 수익화 대상이었지만 이날부터는 90일간 쇼츠 조회수 1000만회 이상인 크리에이터도 수익화가 가능해진다.

콜랩아시아는 쇼츠가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주요 수익창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담이 적고, 시청자들이 많은 수의 영상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또 한 번 제작한 숏폼 콘텐츠는 인스타그램의 릴스, 틱톡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원콘텐츠 멀티유즈'(One Content Multi Use)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콜랩아시아 최유진 대표는 "2년 전부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틱톡을 중심으로 숏폼 영상 크리에이터가 빠르게 성장한 것을 파악한 덕분에 아시아 지역 숏폼 영상 전문 크리에이터의 영입과, 기존 크리에이터들의 쇼츠 제작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콜랩아시아는 숏폼비디오 역량까지 갖춘 글로벌 크리에이터 전문기업으로 거듭났다"며 "이번 유튜브 쇼츠의 수익화로 더 많은 새로운 크리에이터의 출현, 기존 크리에이터들의 다양한 콘텐츠의 시도와 사업확장, 광고주들의 새로운 마케팅을 도전함으로써 크리에이터 생태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콜랩아시아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의 창작 활동을 돕고 수익창출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전 세계 1500개 이상의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콜랩아시아 크리에이터의 소셜미디어 전체 구독자 수는 20억명이 넘고 월평균 누적 조회 수 120억뷰 이상이다.

## 이달의 인물

### 식물의 어머니, 조경사의 세계로! 박혜민 서울식물원 조경사 인터뷰

<어휘 UP>

플로리스트: 식물을 시들지 않도록 가꾸고 꾸미는 일을 하는 사람.

생태: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

생리학: 생물의 활동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

재배: 식물을 심어서 가꿈.

희귀: 드물어서 특이하거나 매우 귀함.

<발문>

1. 조경사가 된다면 길러보고 싶은 상상 속의 식물을 생각해보고 그림으로 그려 보자.

2. 인터뷰를 통해 식물이 어우러진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일상에서 본 식물의 이름과 특성을 일지로 적어보자.

<교사 참고자료>

**“반려식물 키우기? 반려동물보다 쉽죠... 라텍스장갑에 물조리개 하나면 준비 끝”[덕후의 비밀노트]**

에세이 '나는 식물 키우며 산다'(가지)를 펴낸 정수진 작가(34여·사진)는 '식물 덕후'다. 이 책은 식물에 대한 예찬과 더불어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을 담았다. 정 작가는 미술작가로 일하다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사람들이 식물을 키우는 모습을 본 뒤 빠져들었다. 식물을 사랑해 2015년 8월부터 4년 동안 서울 마포구에서 꽃가게 '식물성'을 운영했다. 경영 악화로 가게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식물에 무한 애정을 쏟는다. 최근 인스타그램에 '식물 인테리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글이 54만 건이 넘을 정도로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 5일 정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사람들이 왜 식물 키우기에 빠져들고 있는지, 초보자가 식물을 키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식물 키우기를 사진으로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이들이 많다.

“예쁜 식물이 인테리어나 장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식물과 인테리어를 합성한 신조어 '플랜테리어'라는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식물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리 잡았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좋고, 반려동물보다 키우기가 쉽기 때문인 것 같다.”

-SNS에서 선인장 같은 다육식물(건조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 줄기나 잎에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식물)이 특히 인기가.

“1인 가구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은 직장인들이 물을 자주 주거나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다육식물을 선호하는 것 같다.”

-식물을 키우기 위해 준비물이 많이 필요한가.

“장비는 중요하지 않다. 작은 화분에 흙을 퍼 담을 땐 5000원 이하의 플라스틱 손가락 정도면 충분하다. 그보다 더 작은 화분에 담을 땐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주는 작은 손가락도 유용하다. 식물에 물을 줄 땐 2L 짜리 생수 페트병을 이용해도 된다. 식물 키우기는 큰 준비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취미다.”

-그럼에도 유용한 도구가 있다면 추천해 달라.

“질척이는 흙을 다룰 땐 맨손보단 라텍스 장갑을 끼는 게 좋다. 앞치마를 챙겨 입으면 옷이 더러워지는 걸 막을 수 있다. 화분에 물을 주는 물조리개를 사고 싶다면 예쁜 디자인보단 한 손으로 들기에 편한지 살펴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잎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뿌릴 때 쓰는 압축 분무기를 써볼 만하다. 식물과 흙을 분리하고 먼지를 털는 붓도 유용하다.”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식물에 대한 애정이다. 부지런하게 돌볼수록 잘 자라는 게 식물이다. 자신에게 맞는 식물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한철 아름답게 빛나는 식물을 찾는다면 꽃을 키우는 게 좋다. 꽃이 빨리 시드는 게 마음에 걸리면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식물을 기르는 것을 추천한다.”

-식물은 좋아하는데 키우기가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식물원을 찾으면 된다.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식물원은 규모가 크고 식물 이름표 관리가 잘돼 있어 식물과 가까워지기 좋다. 서울 구로구 푸른수목원,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은 산책하면서 식물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곳이다.”

[동아일보 2021-04-08]

## 과학지식배틀

### 환경 보호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다구?

<어휘 UP>

온실가스: 지구 대기를 오염시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

배합: 이것저것을 일정한 비율로 한데 섞어 합침.

배기가스: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 발생하는 기체성 물질.

발효: 효모나 세균 등의 미생물이 탄소, 수소, 산소 등의 성분으로 구성된 유기 화합물을 분해해 알코올, 이산화탄소 등을 생기게 하는 작용.

<발문>

1. 환경을 보호하는 신개념 제품을 찾아보고 일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지 발표하자.
2. 일주일 동안 집이나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계획표로 작성해보자.

<교사 참고자료>

#### '지구의 날'...생활 곳곳에서 환경보호 실천 시민들 주목

오는 2050년 탄소중립과 함께 환경보호가 최근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은 가운데 생활 곳곳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구의 날인 22일 오전 11시께 대구시 중구.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제로웨이스트'가게답게 가게 앞에는 종이 팩, 플라스틱 뚜껑을 모을 수 있는 통이 마련돼 있었다. 가게 곳곳에는 사람과 환경에 해가 없는 설거지용 비누부터 샴푸용 비누까지 다양한 비누와 청소용품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쪽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용기를 직접 가져와 세탁세제부터 향신료, 파스타까지 소분해 구매할 수 있는 곳도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이모(26·여)씨는 "천연 제품이라고 해서 세정력 등의 기능이 다소 부족할 거라 생각했는데 천연제품들도 좋은 제품이 많다"며 "세제, 소스 등을 소분해 감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빨대, 플라스틱 컵을 종이나 옥수수 전분 소재로 사용하는 카페들도 눈에 띄었다. 카페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위해 사회적 기업이 모여 만든 한 카페에서는 종이 용기, 다화용 컵만 사용하고 있었다.

한 카페 매니저는 "카페에 관련된 플라스틱 사용이 많아 종이용기나 리유저블 컵을 사용하고 있다"며 "컵을 가지고 오시면 음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장 용기를 안 쓰다 보니 손님들도 좋은 일을 한다고 말해주신다"며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기업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서점과 비건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서점 곳곳에는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적혀 있기도 했다. 카페 대표 A씨는 "비건 지향이기도 하고 카페 문을 열면서 환경 요인 등으로 비건 먹거리를 주로 하게 됐다"며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하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자 플로깅에 참여 했다는 안모(24·여)씨는 "플로깅을 하다보니 학교 주변에 담배꽂이가 생각보다 많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플로깅을 하고 나니 쓰레기를 줍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하고나니 뿌듯했다"고 말했다.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 캠페인을 하는 백화점도 있었다. 대구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오는 28일까지 기후 변화 주관을 맞아 생활 속 탄소 줄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은 기후 변화 심각성을 알리고 생활 속 탄소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권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일주일간 제 14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지구를 위한 실천 : 바로 지금, 나부터!'다. 이번 주제에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뉴시스 2022-04-22]